

# 전남도, 5·18 40주년 다양한 기념사업 편다

### 사진전·연극 등 문화사업 확대 지역민 참여하는 행사로 치러 예산 올해보다 3배 늘려... 기념공간 조성·사적지 정비도 본격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 전남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이 펼쳐진다. 전남도는 올해보다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기념·문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미진했던 5·18 사적지 지정 작업과 기념공간 조성 사업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문화사업 확대=전남도는 5·18 40주년을 맞는 내년 5·18 기념행사를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기념행사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 7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던 사업비를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단순한 기념식 수준이 아닌, 전남 지역민들이 참여해 즐기고 공감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공연으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뿐 아니라 전남

도 함께 했음에도,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자체 기념사업조차 추진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 5·18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내년에는 문화제 뿐 아니라 5·18 항쟁 사진전, 주먹밥 나누기 등 지역민 중심의 참여·체험행사, 부대행사 등도 대폭 늘려 진행하기로 했다. 또 5월 광주의 슬픔을 담은 연극 ‘애꾸눈 광대’의 전남지역 순회 공연도 추진된다. 애꾸눈 광대는 5·18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다가 한쪽 눈을 잃은 주인공 이지현 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연극으로, 지난 2012년 초연을 시작으로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5·18 40주년인 내년 5월, 집중적으로 전남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학교 등에 올릴 계획을 세워놓았다. 공공기록물도 관리중인 5·

18 당시 전남도청 현판을 복제, 내년 5월께 도청 입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 5·18 랜드마크·사적지 조성=전남지역의 대표적인 5·18 기념공간도 조성한다. 전남도는 5·18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활용할 전남지역 5·18 기념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1억원을 투입,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진했던 전남 5·18 사적지 조성·정비도 본격화된다.

‘전남 5·18 사적지 지정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5·18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남도의회 우승희(영암 1·민주) 의원은 지난 4월 5·18 민주화운동의 사적지 가치를 지닌 87곳을 파악하고도 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라 사적지 지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올해 말까

지 전남지역 5·18 사적지 지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2월부터 4억8300만원을 들여 목포·나주·화순·무안 등 9개 시·군의 사적지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8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76개 5·18 관련 시설물(안내판·표지석)에 대한 환경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사업(3개 사업 4억 8900만원)과 5·18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사업(2개 사업 3000만원)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6억3800만원)보다 늘어난 16억9800만원 규모의 사업 예산안을 마련, 예산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5·18 정신의 전국화를 알리기 위한 전남도 차원의 다양한 5·18 기념·문화·학술·교육 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40주년 후 5·18 무엇을 할 것인가 광주시, 주제별 전문가 집단 토론

광주시는 1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40주년 이후 5·18 방향설정을 위한 ‘5·18 경제 분야와 5·18기념행사 분야 주제별 전문가 집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18 경제 분야에서는 이무용 전남대교수가 ‘5월경계의 새로운 관점과 컨셉을 통해 정의문화수도 광주만들기의 방향 제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김기공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이 지정토론을 한다.

5·18 기념행사 분야에서는 박강의 전 5·18전야제 총감독이 ‘5·18 기념행사의 시기별 변화과정과 기념행사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전고필 문화기획자가 지정토론을 갖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지사, 태풍 피해 최소화 영상회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오전 도청 정철실에서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비해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김 지사는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상 첫 8조 예산시대 맞은 전남도

### 2회 추경 3224억 증액 8조2590억 편성 의의회 제출

전남도가 8조 예산시대를 맞았다. 서울, 경기 등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 특광역시로 제외된 도(道)로서는 4번째다.

전남도는 30일 “전남도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조2590억원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24억원(4.1%)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246억원 증액된 7조4351억원, 특별회계는 22억원 감액된 8239억원이다.

세출 예산은 일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남지역 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시책사업과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 기반 마

련,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정부 추경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45억원,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848억원, 관광·문화·예술·체육 육성 분야에 183억원,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에 243억원,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 14억원, SOC 확충 등 지

역개발 분야에 212억원, 재난·방재 등 주민안전 분야에 203억원,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 648억원을 증액했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경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도정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33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10월 18일께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권도시 광주서 세계 인권을 논하다

###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 “내년 포럼 유엔 공동 개최” 제안

국내의 인권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인권을 논의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는 ‘지방정부와 인권·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이다. 발제 및 토론자로 254명의 국내외 인권전문가가 참여한다. 전체 참가자는 39개국 98개 도시 2000여명에 달한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주요행사로 꼽히는 ‘전체회의1’에서는 국제연합(UN) 인권최고대표 특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튀니지 아리아나 시장, 인도네시아 쟈비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최근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와 인권도시 재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회의2’에서는 국제연합(UN) 보고서에 담긴 전 세계 도시들의 모범적인 인권정책 사례와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네트워크회의’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와 국내 인권도시 인권옹호자 워크숍, 전국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인권활동가와 공무원이 광주에 모여 국내외 인권이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특히 올해부터 포럼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한 한국국제협력단은 포럼 첫 날인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2019 광주 평화&SDG 세계시민 축제’를 개최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전체회의 발제자로 나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내년 2020세계인권도시포럼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인권기구와 공동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여성재단 대표 김미경 후보자 겸직 논란

### “교수직 휴직 처리 안돼” 인사청문회서 문제 지적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광주대 교수 신분을 휴직하지 않고 겸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의회 예결위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여성재단 규정에는 대표이사의 겸직이 금지돼 있는데 김 후보자가 아직까지 광주대에 휴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휴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

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여성재단 대표이사 지원서를 내기 전에 휴직계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며 “대학 측과 휴직 문제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됐고 학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또 “수입을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광주여성재단 이사과 광주여성노동자회 대표, 한국여성학회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여성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전남도, 롯데슈퍼에 로컬푸드 직매장 잇단 개장

### 두암·문흥점에 새단장

안정적 농산물 판로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롯데슈퍼 광주 두암점과 문흥점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전남 생산자는 판로를 확보하고 광주 소비자는 중간마진 없이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롯데슈퍼와 손잡고 기존에 운영해온 신선식품 매장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슈퍼 두암점은 곡성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한다. 곡성지

역 70여 농가가 생산한 멜론, 토란, 백세미 등 신선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한다.

롯데슈퍼 문흥점은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한다. 나주지역 300여 농가가 참여해 파, 호박, 가지, 고추 등 채소와 배, 참 좋은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판매한다. 롯데슈퍼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가 아침에 갓 수확한 농산물을 오전 9시까지 매장에 진열한다.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읍 구절초꽃축제**

제14회 정읍 구절초꽃축제가  
아름다운 그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 10. 5. ~ 20, 구절초테마공원(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

주최 정읍시, 주관 정읍시구절초꽃축제 추진위원회  
문의 농업정책과 ☎063.539-6171~3 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다정하게, 넘실넘실  
꽃처럼 고운 님, 날 보러와요!

옥정호 물안개 사이로  
청량한 솔(松) 향 흐르고  
연분홍 구절초 꽃 바다  
투명한 가을 햇살 속 넘실대면  
깊어가는 정읍의 가을...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  
가을바람 머문 그곳,  
구절초테마공원에서 펼쳐지는 연분홍 가을동화  
제14회 정읍구절초 꽃축제!  
떠나보자, 정읍으로!

발걸음 닿은 곳마다 쌓이는 추억  
마음껏 담아보는 소중한 이의 행복한 한때  
사랑의 마음 가득 담은 소중한 꽃편까지...

구절초꽃밭에서 펼쳐지는 가을날의 환상동화!  
구절초꽃축제가 그대의 행복한  
가을날을 응원합니다.